“한국형 俗講 ‘땅설법’ 무형문화재 지정을”

김형근 교수, 〈정토학연구〉기고 논문서 주장

땅설법 무형유산의 가치 조명
부처님 일대기 등의 구비경전
노래 · 연극을 통해 쉽게 전달
의례 · 공연 포함된 복합 유산
단절 위기…문화재 지정 돼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와 가르침, 그리고 다양한 불교설화들은 어떻게 전승돼 왔을까. 대부분 글자를 통해 전해져왔지만, 글을 몰랐던 일반 백성들은 이를 접하기는 어려웠다. 이를 쉽게 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중국서 시작된 강창(講唱)이다. 이는 속강(俗講)이라고 했는데, 운문과 산문을 섞어 불교 설화를 전달하는 형식을 설법에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다시 말해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전하는 방편이었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 같은 불교강창과 속강이 존재했다고 학계는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의례나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삼척 안정사(주지 다여)가 ‘땅설법’을 전승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계의 관심은 촉발됐다. 이후 2019년 한국불교민속학회에서 학술대회를 열면서 관련 연구가 시작됐다.

김형근 동아대 기초교양대학 교수가 〈정토학연구〉 34집에 기고한 연구논문 ‘삼척 안정사 땅설법의 구비경전과 무형유산적 가치’는 안정사 땅설법 구비경전의 내용을 분석하고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안정사 땅설법의 전승은 이북 지역서 활동했던 강통(講統, 땅설법 법맥 대표) 무명 스님(1910~1988)으로부터 이뤄졌다. 현재 전승자인 안정사 주지 무여 스님은 10살 때인 1976년부터 1988년까지 무명 스님으로부터 땅설법을 사사했으며, 무명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전법패와 전법게를 받았다.

땅설법의 구비경전(레퍼토리)은 본전 △석가모니 일대기 △선재동자 구법기 △목련존자 일대기 △성주신 일대기 △신중신 일대기 등 5종과 별전 △만석중증도기 △안락국태자경 △태자수대나경 △심청효행록 △삼한세존일대기 △위제희부인만원연기 등 6종이 있다. 본전 · 별전 모두 대부분 부처님오신날, 백중, 수륙재 등서 설행됐으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불교민속학회가 2019년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삼천 안정사 주지 다여 스님과 신도들이 땅설법을 시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땅설법을 “불교 전래 지역에 보편적으로 형성돼 왔던 속강, 강창, 전변(轉變)의 한국형”이자 “다양한 범주에 걸친 복합 불교무형문화유산”이라고 정의한다. 방식이 어찌됐던 땅설법은 불교의식의 한 형태이면서도 강(講) · 창(唱) · 연(演)을 통해 구비경전을 연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땅설법은 ‘변상도’를 필수도구로 사용해 공예 · 미술 관련 전통기술과도 연관이 있으며, 땅설법 연행을 위해 안정사 신도들이 직접 관련 도구를 만들며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안정사 땅설법의 전승은 위기에 봉착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땅설법을 연행하는 속강승(俗講僧)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김 교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꼽았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신입 전승자들의 유입이 가능해지고, 지역 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후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땅설법은 한국을 넘어 불교 문화권의 보편적 문화이자 중국, 일본에는 남아있지 않은 유일한 예”라며 “중국의 기록을 통해 속강이 단순히 판소리처럼 운문과 산문으로만 구성됐을 것으로 상상했다. 하지만 안정사 땅설법은 노래 연극 등을 통해 매우 입체적으로 연행되고 있다”고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삼척시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올해의 무형유산도시’에 선정됐다. 당연히 안정사 땅설법도 해당 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불안한 전승 환경의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보호조치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찰 소장 경판 · 괘불 · 경장 ‘보물’ 지정

문화재청 2월18일 지정공고
쌍계사 목판 3건 등 비롯해
남장사 괘불 · 대둔사 경장
“보존과 활용 적극 나설 것”


① 보물 제2111호 ‘선원제전집도서 목판’
② 보물 제2117호 ‘구미 대둔사 경장’
③ 보물 제2116호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

사찰 소장 목판을 비롯해 전적, 괘불, 경장들이 잇달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하동 쌍계사 목판 3건을 비롯해 남장사 괘불도, 대둔사 경장 등 12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다”고 2월 18일 밝혔다. 또한 조선왕실 문서인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를 국보로 지정했다.

보물 제2111호로 지정된 ‘선원제전집도서 목판’과 보물 제2112호 ‘원돈성불론 · 간화결의론 합각 목판’, 보물 제2113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은 모두 하동 쌍계사 소장 목판이다. 이는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성과로, 지난 2016년 경남 지역 사찰 소장 목판 중 제작시기 · 보존상태 · 희소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건을 보물로 지정한 것이다.

지정 대상 중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른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은 지리산 신흥사 판본(1579)과 순천 송광사 판본을 저본(底本)으로 해 1603년(선조 36) 조성된 목판으로, 총 22판 완질이다.

판각에는 당시 지리산과 조계산 일대에서 큰 세력을 형성한 대선사(大禪師) 선수(1543~1615)를 비롯해 약 115명 내외의 승려가 참여했다.

문화재청은 “쌍계사 소장 ‘선원제전집도서 목판’은 병자호란(1636) 이전에 판각된 것으로, 전래되는 동종 목판 중 시기가 가장 이르고 역사적 · 학술적 · 인쇄사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원돈성불론 · 간화결의론 합각 목판’은 고려시대 지눌(1158~1210) 스님이 지은 〈원돈성불론〉과 〈간화결의론〉을 1604년(선조 37) 능인암에서 판각해 쌍계사로 옮긴 것으로 총 11판의 완질이다. 병자호란 이전 판각됐으며, 관련 경전으로는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어 보물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은 1455년(세조 1)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판본을 저본으로 해 1611년(광해군 3) 여름 지리산 능인암에서 판각돼 쌍계사로 옮겨졌으며, 총 335판의 완질이 전래되고 있다.

사찰 소장 괘불도와 목공예품인 경장도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제2116호로 지정된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및 복장유물’은 높이 11m에 이르는 대형 불화 1폭과 각종 복장물을 넣은 복장낭(腹藏囊), 이를 보관한 함을 포함한 복장유물로 구성됐다. 이 같이 불화와 함께 복장유물을 놓은 복장낭이 온전하게 일괄로 남아 있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괘불도는 1776년(정조 1) 조선 후기 대표적 수화승 유성을 비롯한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한 화승 23여 명이 참여해 제작한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기준이 되는 작품이다. 또한, 17~18세기 제작 괘불이 여러 번 보수를 거치는 동안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것과 달리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점은 이 괘불만의 독보적인 가치로 꼽을 수 있다.

보물 제2117호 ‘구미 대둔사 경장’은 1630년(인조 8)에 조성된 경장(經櫥, 불교 경전을 보관한 장)으로 조선 시대 불교 목공예품 중 명문을 통해 제작 시기가 명확하게 파악된 매우 희소한 사례이다.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 불교 목공예품으로 경장을 비롯해 목어(木魚), 불연(의식용 가마), 촛대, 업경대(業鏡臺, 생전에 지은 죄를 비추는 거울) 등 다양한 종류가 제작됐으나 제작 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은 매우 드물다”면서 “‘구미 대둔사 경장’은 왼쪽 경장의 뒷면과 밑면에 제작 시기와 제작자, 용도 등을 두루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조선 후기 목공예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수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본격화’

2025년까지 221건 구축 목표
봉정사 극락전 등 올해 시행

문화재수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올해부터 문화재수리 의사결정 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환하고 분산 관리되던 문화재수리이력을 하나의 3차원 유형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HBIM(Historic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구축한다”고 2월 15일 밝혔다.

HBIM은 건조물문화재의 3차원 형상정보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수리이력 등에 관한 비형상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정보모델로 문화재 분야에서 적용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2025년까지 국보와 보물 건조물문화재 중 221건의 HBIM을 구축할 예정이다.

HBIM이 구축되면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렵던 건조물문화재 주요 구조부의 접합방법, 내부 구성부재의 형상 등을 3차원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부재별 재료정보, 수리이력 등의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올해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 등 국보 · 보물 목조 건조물문화재 27건에 대한 HBIM 구축을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

종단에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수강생 모집 안내

종단에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들에게 선교양종대본산(禪敎兩宗大本山)인 조계산 선암사에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스님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승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찰에서 통학을 하면서 주2일 수강 하는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강 일시 : 2021년 3월 3일(수)
▣ 강의 일정 : 매주 수, 목요일(1박 2일, 1일 2시간)
▶ 첫째날 - 14:00 ~ 16:00 (2시간)
▶ 둘째날 - 03:30 ~ 04:40 (아침예불)
05:20 ~ 06:00 (발우공양)
09:00 ~ 11:00 (2시간)
※ 개인사정에 따라 매일 통학 가능.
▣ 과목
▶ 1학년(치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 2학년(사집반) : 서장, 선요, 도서, 절요
▶ 3학년(사교반) :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 4학년(대교반) : 화엄경
▶ 공통 : 의식, 외전(교양, 문화 등)
▣ 강사 :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 목우스님, 강사 각안스님, 외래 초빙강사
▣ 수강료 : 한 학기(6개월) 600,000원.
▶ 농협 351-0422-9291-33 선암사

▣ 특전
▶ 통학하며 수강.
▶ 4년 수강시 선암사 강원장(주지) 명의 졸업증서 수여
한 학년 수강 시 해당 학년의 수료증서 수여
▶ 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 과목 이수자는 상위학년 편입학 가능
▶ 수강일 새벽예불, 발우공양 실시(희망자에 한 함)
▶ 타종단 승려도 수강 가능
▶ 성적 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

▣ 등록서류 : 입학원서 외(입학원서에 명시되어 있음)
▣ 등록마감 : 2021년 2월 28일

※ 입학원서는 선암사 홈페이지 (www.seonamsa.net)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코로나19로 인해 학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특별강원장 시각 합장
(우)57909 전남 순천시 선암사길 450 / 문의전화 061) 754~5247, 5953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대상 : 전국사찰 법당서 소리 체험 후 선택 (제주도 포함)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190만원부터~,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슷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제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8만원
각종 제 전문 무선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 58만원